

SUMMER 2009

또 하나의 나 우리

www.plankorea.or.kr



Plan
Be a part of it

행복을 주는 사람!!

플랜 가족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플랜코리아의 새내기 홍보대사 최정원입니다.

플랜의 한 가족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이제는 탤런트 최정원이 마넩 방글라데시에 딸을 둔 엄마로 제 자신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미 전세계 곳곳에 있는 아이들을 후원하고 계신 선배 후원자님들에 비하면 이제 겨우 마넩 후원에 발을 디딘 초보엄마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 딸 무수미를 향한 사랑만큼은 선배 후원자님들에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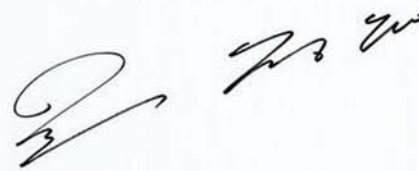
무수미와 함께 했던 시간을 되돌아키며 아이의 해맑은 사진을 보면 가슴 뭉클한 애뜻함이 느껴집니다. 무수미 또래의 아이들만 봐도 무수미가 생각납니다. 지금 무수미는 무엇을 하고 있을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학교에서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무수미에 대한 모든 것들이 궁금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무수미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제 후원의 행복을 알게 된 제가, 그리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제가 이렇게 한 아이를 딸로 여기고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제 자신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그리워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행복입니다. 이러한 행복함에 감사합니다.

플랜 가족 여러분도 이러한 행복을 누리시며 즐거운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실 수 있는 뜨거운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최정원 드림




'또 하나의 나 우리'는 플랜코리아가 전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입니다.

플랜은 73년 전통의 국제아동후원단체로 UN 경제사회 이사회의 협의기구입니다. 세계 최대 개발 원조 단체인 플랜은 비종교, 비정치, 비정부의 국제기구로서 영국에 국제본부를 두고 있으며 17개국을 후원으로 하여 전세계 49개 저개발국의 1백45만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Vol. 47 나 우리

www.plankorea.or.kr

C O N T E N T S

02 **행복을 주는 사람** • 홍보대사 탤런트 최 정 원

04 **지구촌을 간다 I** • 탤런트 최 정 원

06 **지구촌을 간다 II** • 탤런트 고 은 아
- 은아의 세네갈 여행기...

08 **2009 러브콘서트, 네번째 이야기**

알려드립니다

10 플랜코리아에 궁금합니다.

11 새로운 시작 2009년 THE좋은선물

니눔의 행복

12 롯데 에비뉴엘- "Share the Love with AVENUE 2009"

13 섀넛푸드, 네팔에 꿈과 희망을 심다.

14 **우리는 플랜 가족** • 자원봉사자 석 병 옥
- 플랜과의 잊지 못할 한 달 간의 이야기...

16 **플랜 가족** • 후원자 남 인 현

플랜 NEWS

18 플랜 코리아 소식

19 플랜 지구촌 소식

20 **플랜과 함께하는 분들**

• 모금함 • 특별후원금 • 특별후원자 • 신규 어린이 결연 후원자





지구촌을 간다

· 탤런트 최 정 원

지난 4월 초 플랜코리아에서 무수미를 만나러 가지 않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무수미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가 중국에서 방송 시작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 중국 홍보 프로모션 스케줄을 비롯해 광고 촬영, 인터뷰 등의 일정이 빠듯한 일정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해외 스케줄을 조정하고, 중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국세청과 약속한 행사에 참석한 후 3박4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무수미를 만나기 위해 방글라데시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단 한 아이가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줄 방글라데시 방문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환영해 준 중국 방문의 설렘과는 또 다른 설렘과 기대였습니다.

자정이 지나서야 수도 다카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잠깐의 휴식 후 버스로 4시간이 넘게 걸리는 가지푸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포장도 되지 않은 도로를 4시간이나 가는 먼 길이었지만, 잠을 못 잔 피로도, 덜컹거리는 차의 불편함도 가슴 한 구석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애뜻함과 기대감으로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도착한 무수미의 집.. 보통의 아이들 같으면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이지만 무수미는 학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아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아왔던 아이.. 나는 무수미의 모습에서 이 아이가 나를 만나기를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여기저기 지저분해진 옷을 입고 있는 무수미

였지만, 나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 얼마나 공들여 차림을 했는지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굴을 마주 본 것은 처음이지만 우리는 아주 오래 만난 친구처럼, 사랑하는 가족처럼 그리고 아프게 키운 딸처럼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아무런 말도 없이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수미 동생 라니 무수미보다는 샘도 많고 망설임도 없이 내 품에 안기기도 하고, 가지런한 치아를 드러내며 활짝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정말 순수한 아이입니다. 오빠 파룩은 이제 13살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떠나 있다가 내가 온다는 소식에 일을 잠시 쉬고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세 아이의 엄마이고 든든한 의지처이지만,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 아이들에게 주는 작은 것들보다 내가 받는 더 큰 기쁨과 행복은 제 의지처이기도 했습니다.

내게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짧지만, 나는 이 아이들과 함께 밥을 지어 먹고, 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점심을 거른 우리는 이른 저녁을 먹기 위해 시장에서 산 갖가지 야채와 닭을 다듬습니다. 저녁 메뉴는 치킨 카레입니다. 칼을 쓰는 법을 가르쳐주는 두 아이들의 눈이 아름답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배고픔을 잊은 것 같습니다. 서투른 음식 솜씨로 만든 카레이지만 이 아이들은 고맙게도 너무 맛있게 먹어줍니다.

다음날, 우리는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내 작은 도움과 플랜의 도움을 받아 두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두 아이들이 잘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저도 함께 교실에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무수미와 의사가 되고 싶다는 라니가 그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꿈 같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작별의 시간.. 무수미는 벌써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라니만 내 주변을 맴돌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밥도 잘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꼭 다시 오겠다고, 튼튼하게 잘 자라서 곧 만나자고 얘기하

고 있으려니, 어느새 무수미가 제 품에 와서 안깁니다. 등을 토닥거리는 제 눈에도 눈물이 고이지만 이 아이들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는 깨끗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려 합니다.

긴 포옹과 입맞춤을 하고도 손을 놓지 않고 있던 아이들은 결국 우리가 타고 가는 버스가 안 보이는 동네 어귀까지 뛰어 나와 우리를 배웅해줍니다.

내가 그 아이들에게 준 것은 조그만 물질적인 도움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아이들은 제게 가슴 뭉클함과 진짜 엄마가 된 듯한 감정.. 그리고 잘 진정되지 않는 가슴 설렘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도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네요.

다음에 만날 때 그 아이들이 훌쩍 커버린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나도 좋은 엄마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고 밝게 커가길..

**사랑해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무수미, 라니, 그리고 파룩**



은아의 세네갈 여행기

• 탤런트 고 은 아

2009년 4월 25일

내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기회.. 기대와 설레임을 안고 나의 세네갈 여행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난 어느새 비행기에 몸을 맡긴 채 나의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세네갈로 향하였다.

다카르에 도착한 나는 길거리로 발걸음을 향하였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광경에 나는 세네갈 아이들의 어려운 실태를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운동장에서 뛰어 놀고 있어야 할 아이들.. 그리고 교실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할 아이들이 강통을 들고 구걸하는 모습에 마음 한구석 아파왔다. 아침도 거르며 한국으로 파지면 이제 초등학교 1~2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왜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학용품이 아닌 강통을 짊어지고 나와야 하는지.. 무엇이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는지.. 좀더 깊게 이해하고자 나는 더욱이 발걸음 재촉하여 어느 작은 마을 보건소를 향해보았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대부분이 어린 한 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고통스런 목소리들... 그 중에서도 몇 년 전부터 알 수 없는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만날 수 있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모른 채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아이를 보며 내심 '아~ 그렇게 심하진 않은건가?'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다. 아이의 다리는... 말을 이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굵아있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얼마나 지속되었기에 아이는 그 고통에 적응을 해버린 것일까...

보건소라고 하지만 한국과는 너무 다른 조건들.. 치료할 수 있는 약이라곤 소독약뿐이어서, 그 흔한 예방접종을 할 수 없어 작은 병도 커져버릴 것 같았다. 약품 보관함을 보는 내내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다. 아픈데도 치료받을 수 없는 아이들



을 보며 속상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 중 한 아이를 따라 마을 깊숙이 들어가 보았다. 마을 중앙에 있는 우물.. 우물 근처에는 아이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한 손 한 손마다 양동이를 들고 있었다. 난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물을 기르고 있는 아이들 손엔 맑은 물이 아닌 먹을 수조차 없을 것 같은 흙탕물만 가득차 있었다. 우물 안을 내려다보니 그 안에는 아이들 손에 들려 있는 흙탕물과 같은 물이 우물을 채우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이 물을 마신다는 건가... 더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우물에 물이 말라가고 있었고 그 우물에서 모자란 물을 그 옆 작은 웅덩이에서 물을 길어다가 마신다는 얘기였다. 없는 병도 생기게 할 것 같은 그 환경



“너무 말라 부러질 것 같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무거운 양동이를 거뜰히 드는 모습을 보며 언제부터 해왔길래 성인인 나도 들지 못하는 그 무거운 양동이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드는지...”



에 나의 놀라움은 멈출 수가 없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리를 걸어 매일 물을 길러 온다는 아이들..

너무 말라 부러질 것 같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무거운 양동이를 거뜰히 드는 모습을 보며 언제부터 해왔길래 성인인 나도 들지 못하는 그 무거운 양동이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드는지 의아했다. 아이들을 도와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보았다.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 난 인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장난을 걸어보았다. 그런데 쑥스러워 웃음을 잡아올리는 아이에게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이에 배는 보통배가 아닌 혹이 달려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뿐만이 아닌 다른 아이들에게서도 같은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 왜 아이들 배에 이런 혹들이 달려 있는 것일까... 그 문제는 바로 물이었다. 아까 보았던 그 흙탕물로 인해 아이들에게선 어느 순간부터 혹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도대체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

그나마 다행인건 이 문제점을 알고 코이카 식수개발사업장을 중심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고 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해 나가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당연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의 친구 마마도우를 만나러 가보았다. 마마도우는 아주 착하고 쑥스러움이 많은 남자아이였다. 처음 본 나에게 한국 후원자가 보내준 선물을 자랑하며 웃는 아이를 보며 그 미소에 내 마음이 너무 뿌듯하였다. 마마도

우의 어머니께서는 멀리서 온 나에게 깊은 곳에 숨겨놓은 세네갈에선 귀하고 귀한 설탕을 꺼내어 맛있는 설탕물을 끓여 주셨다. 그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비록 생김새와 언어는 다르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간단한 대화를 마친 나는 마마도우와 마마도우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를 하였다. 처음엔 낯가림을 하던 우리 마마도우는 어느 순간 나의 친구가 되어있었고 그렇게

귀중한 시간을 가지고 헤어지는 순간.. 알 수 없는 기분에 눈물이 쏟아졌다.

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러 온 것인데... 내가 준 것보다 아이들이 나에게 준 것이 더 많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때문지 않은 아이들의 순수함, 미소.. 더 이상 이 아이들이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사실 나 또한 직접 경험하지 못해 보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머리모만 이해할 수 있었지만 직접 보고 느끼고 겪어보니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많은 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5일간의 세네갈 여행...

마지막이 되지 않을 나의 여행.. 언젠가 다시 한번 세네갈을 방문하여 내 친구들의 미소를 다시 한번 보고 싶고 그랜 지금보다 나아진 환경 속에서 뛰어 놀고 있을 아이들을 기대해보며 이렇게 나의 여행은 끝이 났다.

안녕~ 나의 친구들 그리고 세네갈.. 고맙고 사랑해요.

2009 러브콘서트, 네번째 이야기

전세계의 가난과 굶주림에 신음하는 아이들이 해처럼 밝은 미소를 지을 그 날을 바라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플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가정의 달인 5월의 둘째 날, 플랜코리아는 에버랜드 로즈가든에서 '2009 Love 콘서트'를 열었다. 러브콘서트는 세계 빈곤국 아동에게 1:1 후원을 통해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올해 4회째를 맞이했다. 특별한 이날에 인기 가수 조성모, SG워너비, 휘성, 윤하, 스위트로우, 에이트, 나몰라 패밀리가 참여하여 지구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뜨거운 무대를 펼쳤다.

평소 따뜻한 마음으로 아동후원에 관심이 있던 탤런트 최정원과 고은아가 지구촌 아이들을 위해 각각 방글라데시와 세네갈을 직접 방문하여 사랑을 전하였다. 최정원은 방글라데시 가지푸르에 살고 있는 무수미(10)를 찾아갔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사고로 잃고 생계를 위해 빨간색을 구해서 팔아야 하는 고단한 무수미의 생활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무수미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학교에 다니며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1:1 후원을 결심하였다. 고은아는 오염된 식수와 배고픔으로 시달리고 있는 세네갈 어



린이들을 찾아갔다. 세네갈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고은아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동안 같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학용품과 신발, 티셔츠, 축구공 등을 선물로 나눠 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플랜가족들의 후원담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동갑내기 친구를 후원하고 있는 박한샘 후원자(15), 캄보디아 아동을 후원하고 있는 서정은 후원자(30), 세계 각국 9명의 어린이들에게 후원을 통해 꿈을 심어주는 심영철 후원자(53)가 후원담을 나누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사랑의 불씨를 나누었다.

더불어 기업적 차원의 노력도 소개되었다. 의류 및 생필품지원부터 지역 초중학교 건축까지 지구촌 나눔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 포스코, 삼성엔지니어링, 다음, EXR, 롯데 에비뉴엘의 활동을 통해 지구촌 빈곤 아동들의 행복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인순이, 오지호, 김현주, 윤진서, 윤정희, 백성현 등의 연예인들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굶주림과 질병에 고통 받은 아이들을 위한 1:1 후원은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며, 그것이 아이들에게 새 삶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LOVE, 여러분의 사랑이... LIVE, 아이들에게 새 삶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구호로 후원을 호소하였다.

이 날의 감동은 5월 5일 오후 6시 45분에 MBC를 통해 방영되어 많은 이들에게 따뜻함을 전함과 동시에 수많은 지구촌 아동과 플랜 가족의 연결통로가 되었다.





플랜코리아에 궁금합니다.

후원자님께서 자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플랜코리아가 답해 드립니다.

Q1. 아동 자료를 받고 아이디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정보와 다르다고 나와요.

- ❶ 플랜코리아 홈페이지 로그인은 인터넷으로 후원신청을 하셔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등록하신 경우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등록하지 않으신 경우가 다르게 이루어 집니다.
- 1) 인터넷으로 후원신청을 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미 등록한 경우 → 아동자료를 받으신 후, 등록하신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화면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등록하지 않으신 경우 → 후원신청하기 → 후원자 아이디 등록을 통해 후원자 번호, 후원자 명을 입력하신 후, 후원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플랜코리아 사무실 02-790-5436 으로 연락 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Q2. 로그인을 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 ❷ 1) 후원자님 개인 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주소나 연락처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시 등록하신 주소와 우편수령지가 동일하신 경우 '주소와 동일'에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변경된 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되게 됩니다.
- 2) 후원아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께서 후원하시는 후원아동의 이름, 국가,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원자님과 후원아동이 주고받은 서신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 사진은 현재 홈페이지 업로드 작업 중으로 현지에서 파일로 준비된 아동부터 홈페이지 게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3) 기부금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연말 소득공제에 필요하신 기부금 영수증 출력을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Q3. 선물 발송이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후원아동에게 선물을 보낼 수 없는 건가요?

- ❸ 지난 3월 소식을 통해 공지해 드린 것과 같이 후원자님께서 개인적으로 보내시는 선물은 5월을 마지막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선물발송은 중단되었지만 후원자님의 편지와 사진은 기존과 같이 발송 되오니 후원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후원자님의 소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플랜코리아에서는 선물 중단으로 아쉬워하실 후원자님과 아동들을 위해 2009 THE좋은선물 진행과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 선물할 수 있는 방법을 현지와 논의중에 있습니다.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플랜코리아로 보내주시는 선물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반송하여 드리기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2009년 THE좋은선물

저개발국 어린이와 가족,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현금으로 현지에 전달해 보다 경제적이고 지역 중심적인 방법으로 현지 개발에 도움을 주는 THE좋은선물 2009년 사업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THE좋은선물은 저개발국 어린이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선물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후원자님과 소중한 분의 생일이나 결혼 등 특별한 날을 함께 뜻 깊게 기념하실 수 있습니다.

THE좋은선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염소 보내기

소 1마리를 통해 집안 살림을 꾸려갔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지금 네팔에서는 염소 1마리가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염소를 통해 생산되는 우유와 치즈는 어린이의 영양상태를 좋게 할 뿐만 아니라, 판매를 통해 가게 소득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염소가 새끼를 낳을 경우, 이웃에게 분양해 마을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염소 보내기 : 5만원 [목표금액\$10,000(1,300만원)]

양 보내기

수단 국토의 1/4가 목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단의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린이들과 그 가정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수단 사람들에게 양이 지급되고, 그 양이 새끼를 낳을 경우, 다른 이웃에게도 분양하게 됩니다. 양은 양털과 양모를 만들어 각 가정의 의식주 및 자녀 교육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 보내기 : 5만원 [목표금액\$5,000(6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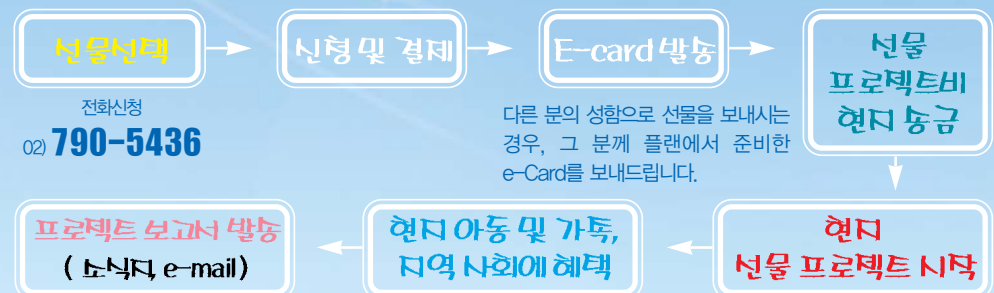
도서관 짓기

캄보디아는 10세 이상 인구 중 70% 미만이 문자를 해독하는 수준에 그칠 정도로 문맹률이 높은 국가입니다.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을 지어준다면, 학교는 교육의 질 향상을, 어린이들은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도서관 짓기 : 5만원 [목표금액\$20,000 (2,600만원)]

THE좋은선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후원자님의 후원에 감사 드리며, 선물 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02-790-5436 / kno@plankorea.or.kr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hare the Love with AVENUE 2009

에비뉴엘과 조세현작가가 함께하는 아름다움 고객 사진전

● 'Share the Love with Avenue'이라는 슬로건 아래 자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롯데백화점 명품관 에비뉴엘(대표이사 이철우)에서는 베트남 롯데 스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세현작가와 함께하는 아름다움 고객 사진전을 진행한다.

작년 3월 김종만작가와 함께한 'Be OUR Star' 사진전과 11월 세계적인 샴페인 브랜드 모엣&상동과 배우 이자이만의 독특한 디자인이 가미된 리미티드 에디션 패키지 판매에 이어 세번째 진행되는 따뜻하고 특별한 프로젝트이다.

●● "Love"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에비뉴엘 고객들의 얼굴을 포착한 포토그래퍼 조세현작가의 아티스틱한 사진전으로 자선(Charity)과 깊은 인연이 있는 조세현작가와 함께 한 스페셜 프로젝트이다. 에비뉴엘의 주인공인 고객과 스타 포토그래퍼가 만나 그 어느 전시보다 의미가 있으며, 조세현작가의 피사체는 전문 모델도, 풍경도 아닌 에비뉴엘 VIP고객으로,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진으로 담아내었다. 사진 전시는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에비뉴엘 9층 롯데 아트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전시회 기부금 전액은 플랜코리아를 통해 베트남 빈곤아동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 및 기숙사(롯데스쿨) 건립에 쓰이게 된다. 롯데스쿨은 올해 7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

●●●● 2005년 오픈 이래 에비뉴엘은 단순한 명품관이라는 상업적 명칭을 넘어선 자선과 예술이라는 분명한 이미지를 얻었다.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요구 되는 현대 사회에 맞게 진행되는 기업 중심이 아닌 고객 참여 중심 자선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에비뉴엘 자선행사의 특징이다.

SUN a FOOD

썬앳푸드, 네팔에 꿈과 희망을 심다.

토니로마스, 스파게티아, 메드포칼릭, 봄날의 보리밥 등을 운영하고 있는 외식전문기업인 (주) 썬앳푸드(대표이사 남수정)는 네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네팔 방케 지역에 ECCD센터를 짓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시작한 공사는 올해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ECCD(Early Childhood Care and Development) 센터는 0~6세 아동의 보육을 위한 시설이다.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도록 간식 등을 지원하며,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가난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육을 받지 못하는 네팔의 어린이들이 기초적인 교육

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 건강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썬앳푸드에 짓고 있는 ECCD센터는 교실, 부엌 및 다용도실, 화장실로 구성되며, 더불어 임산부에 대한 의료 지원과 교육도 실시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는 역할을 한다.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동 식수 펌프대도 설치할 예정이다. 방케에 지어지고 있는 ECCD센터는 아동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썬앳푸드는 플랜코리아를 통해 30명의 인도네시아·네팔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다. 썬앳푸드는 보다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글로벌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



Spaghetti Classico

Spaghetti

TONY ROMA'S RIBS SEAFOOD STEAKS



플랜과의 잊지 못할 한달 간의 이야기...

· 자원봉사자 석 병 옥



지는 나에게 플랜코리아라는 단체를 소개해주었다. 그리고, 2009년 4월 13일, 집에서 한남동에 위치한 플랜코리아에 가기 위해 허겁지겁 갔던 나는 사무실에 채 들어가기도 전에 플랜 직원분들을 뵈게 되었다. “아직 식사 안 하셨죠? 같이 점심 먹으러 가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리저리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나의 플랜에 대한 첫 느낌은 내가 가끔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사람 냄새’였다. 인도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며 방학을 맞아 1년 4개월 만에 온 나는 정에 굶주려 있었다. 물론 인도 친구들과 때로는 한국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재미있게 인도에서의 생활을 향유하고 있었지만, 타지에서 유학생으로써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독감 또는 외로움이었다. 그런 나에게 플랜코리아는 일종의 작은 놀이터이자 쉼터였다. 나는 플랜에서 후원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정리, APR(Annual Progress Report) 또는 SCI(Sponsored Child Information), 후원자로부터의 편지자료 등을 번역, 후원 저금통에 돈 종류에 따라 나누고, 아이들의 사진을 분류해 모으고, 필요한 자료를 복사하고, 후원자 분들에게

보내줄 자료를 보내기 위해 우체국에도 가는 등의 일을 했다. 사무 보조 자원봉사를 하면서 플랜 가족들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그랬는지는 항상 재미있게 일할 수 있었다. 플랜 가족들과 이야기도 주고 받으면서 하는 일들이 나에게 즐거움 그 자체였다. 처음 그런 일들을 해보기에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하나 배워가는 재미가 쏠쏠했다.

내가 플랜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동안 에버랜드에서 ‘LOVE 콘서트’를 하게 되었다. 세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콘서트였기에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비가 와서 날씨가 매우 쌀쌀했다. 에버랜드에 도착해, 콘서트가 있을 장소 근처에 후원신청과 페이스페인팅을 하는 부스를 운영하였다. 페이스페인팅은 어린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아 많은 아이들이 몰렸다. 얼굴에 그려진 그림을 보며 행복해 하는 아이들을 보며, 빈곤국 아이들이 생각났다. 그 아이들도 이런 기쁨과 행복을 느꼈으면...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후원자를 만나고 아무런 걱정 없이



공부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콘서트가 시작될 즈음에 비는 그쳤다. 관객들에게 티셔츠를 나누어주었는데, 사람들은 ‘LOVE’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다. 나는 플랜코리아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픈 마음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관객석에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인사하면서 플랜을 소개하는 자료를 나누어주었다. 한 외국인에게 콘서트 내용과 후원하는 방법들을 홍보하려고 영어로 말을 건냈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유창하게 대답해서 당황하기도 하였다.

사람들에게...

플랜코리아에 대해서 알리는 동안 콘서트는 시작되었고, 아이들을 돕기 위해 출연하였던 가수들이 열정적인 무대를 펼쳐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다. 콘서트 중간에 세계 빈곤에 대한 영상이 나왔는데, 아프리카 등지에서의 아이들의 생활은 참혹하기 그지 없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콘서트는 성공적으로 치워졌다. 그때의 짜릿함이란 헤아릴 수가 없었다. 비록 자원봉사자였지만, 매일 사무실에 나와 일을 하면서 책임감도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5월 5일...

그리고 5월 5일, 우리는 여의도의 MBC 방송국에 모여 방송 하면서 걸려온 후원 전화를 받았다. 방송이 시작되고, 후원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TV에 나오자마자 걸려오는 전화에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사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는 아저씨, 자녀에게 아프리카에 사는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어느 중년의 여성분, TV 사연을 보니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며 후원을 결심하신 할아버지... 그분들의 사연을 듣게 되면서 세상의 따뜻함이 이곳 저곳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 이분들의 따뜻함으로 지구촌 곳곳에 있는 아이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전화를 받으면서 내가 후원자분들과 빈곤국 아이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에 보람을 느꼈다.

5월 12일, 직원 분들에게 작별인사를 드려야 할 순간이 찾아왔다. 다시 인도로 돌아가기 위해 한달 간의 한국생활을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얻고 가는 것 같았다.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뜻 깊게 느껴졌다. 나의 인생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한편으로는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신 플랜 직원분들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헤어



지는 것이 섭섭했다. 일일이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와 돌아가는 동안 지난 일들이 스쳐지나 가면서 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행복감을 느꼈다.

인도로 돌아오는 날...

인도로 돌아오는 날,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차에 있던 나에게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플랜에서 온 전화였다. 통화를 하는 동안 정말 감사함을 느꼈다. 내가 돌아갈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서 전화를 하셨다는 것도 왜 그리 감동적이었는지... 역시 플랜은 달랐다. 서로 끈끈한 유대관계 아래 서로 위해주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많이 느끼고 배웠다. 세계에 있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 따뜻함으로 감싸주는 모습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한번 부족한 나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주신 플랜 임직원 분들께 감사 드리며 플랜에서의 추억을 가슴에 새긴다.

줄곧 한변쪽은...

NGO에서 근무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나는 약 6주 정도 머무를 방학기간을 조금이라도 알차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에 있는 아버지께 1달 정도 NGO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아버

Plan Family Interview

· 후원자 남 인 현

플랜코리아의 든직한 가족이 있다.

바로 남인현 후원자님이다.

남인현 후원자님은 플랜을 통해
베트남 여자 아이를 후원하시면서,
사무봉사도 하신다.

항상 묵묵하게 열심히

플랜의 일들을 도와주시는

후원자님을 만나보았다.



1. 어떻게 후원을 시작하시게 되었나요?

어느 날 우연히 TV를 시청하던 중에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이 방송 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북받치는 감정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래 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욕은 감정이 슬며시 올라오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 않는 삶인데, 잠시 하고 끝내면 안 한 것만 못 할 텐데...' 그동안 시작도 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내 모습이 우스워지더라고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작지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후원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네, 돈이 없네...' 등등 핑계만 생각해내며 지나온 시간들 동안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늦은 시작이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기에 다행이라 생각하며 지금 이 마음이 변치 말자고 다짐 또 다짐하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삶을 살기를 그날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 따뜻한 후원이야기를 들려주실 후원자님께서는 02-790-5436이나 kno@plankorea.or.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인터뷰를 해주신 후원자님께서는 인터뷰 사진을 예쁜 액자에 넣어 보내드립니다. >

2. 특별히 플랜코리아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색했고 마음을 먹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기에 작은 손길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없을까 하는 욕심에 해외아동후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어려운 사람들과의 1:1 교류도 할 수 있으며, 비록 적은 돈이지만 그들에게는 한 달이라는 시간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지금의 제 사정에서는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중 플랜코리아를 선택한 계기는 한국전쟁 당시 양친회로서 활동을 했으며 세계 각국에 도움을 손길을 내뻗으며, 오래된 전통의 단체라는 것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또 플랜코리아에서 후원을 하는 여러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 그들 개개인의 행복감이 엿보였기에 저 역시 그들과 같이 즐거움을 만끽하고자 믿음을 가지고 플랜코리아를 조심스럽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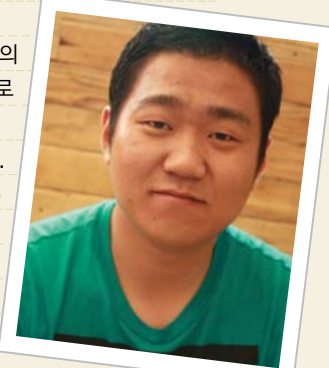
3. 지금 후원하고 계신 베트남 아동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플랜코리아에 가입을 하면서 지원하고자 하는 희망 국가 선택이 있었습니다. 여러 국가가 있었고 처음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를 선택하고자 했었는데 언젠가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동남아시아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가입 후 얼마 뒤 플랜코리아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에 급히 봉투를 뜯고 포장 속의 보물을 기대하듯 조심스레 서류를 꺼내보니 그 속에는 베트남에 살고 있는 '트란 티 탄 난'의 프로필과 사진이 들어있어요. 사진 속 트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왜 이리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지...

사진 속의 트란은 햇볕에 눈이 따가운지 살짝 찡그리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귀엽고 천사 같은 미소가 제 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트란은 베트남에 살고, 나이는 6살이며,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세 가족이 생활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요.

이 아이를 알게 되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사진 속 아이의 미소를 잊지 않기 위해 항상 사진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 다음에 이 아이의 미소를 직접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4. 후원을 하시면서 자원봉사도 하고 계신데,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후원을 하게 되면서 물질적 도움으로는 당시 가졌던 마음을 잊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제가 직접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며 자원봉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따뜻함이 이곳 저곳에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슴 한 켠에서는 늦은 시작이지만 그 따뜻함을 저도 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즐거워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도 모르는 감성이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평일이 쉬는 날이라 플랜코리아 평일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신청하였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지금 제가 잠시 시간 내어 하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란 마음으로 봉사의 묘미를 조금씩 깨우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무언가 하고자 하는 제 자신이 즐겁습니다.



5. 남인현 후원자에게 있어서 나눔이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나눔이란... 살아오면서 가장 쉬운 질문이지만 조금씩 깊어져 가는 의문과 생각들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나눔이란 지금껏 무언가를 가져보지 못한 제게는 생소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아직까지 제가 만족할만한 무언가를 해보지 못했기에 나눔이란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저에게 나눔이란 것은... 부족하지만 제 조그만 능력을 다른 이에게 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주면 찢지 왜 빌려주냐'고 하겠지만, 제가 빌려주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주는 것은 받는 사람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주었고, 받았기에 다시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담감이 생기게 될까 걱정되기에 빌려준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무상으로 빌려주었음을 제 자신이 잊어야겠지만요. 자신이 가진 조그만 한 것을 빌려주고 잊어버리기 일쑤잖아요. 서로가 부담스럽지 않게 나눔 역시 내 조그만 능력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합니다. 부끄러운 제 능력이지만, 그래도 전 제 자신을 사랑하기에 나눔이란 저만의 즐거움을 갖고자 하는 조금은 이기적인 저희 희망 갖기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희망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플랜코리아 소식

TBJ, '니어바이 유' 캠페인을 통해 플랜코리아 후원

(주) MK트랜드 TBJ가 플랜코리아를 통하여 세계 빈곤 아동에게 사랑을 전하는데 앞장섰다. TBJ는 사랑을 테마로 한 '니어바이 유(Nearby You)'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Nearby'는 '가까이에, 근처에'라는 뜻으로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가족과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였다. 키즈 티셔츠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플랜코리아에 후원하여 지구촌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였다.



파고다 교육그룹, 창립 40주년을 맞아 140명 아동 후원

파고다 교육그룹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고객의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지구촌 140명의 아동을 후원하였다. 이번 후원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파고다 직원들의 나눔을 통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전세계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였다. 파고다의 어린이 후원을 통해 140명의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미래를 향한 꿈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다.



박용일 교수, 아프리카 수단에 5차 양사업 시작

대림대학 박용일 교수가 '수단 양 보내기' 1,2,3,4차 사업에 이어 5차 사업을 시작하였다. 5차 사업은 노현영교수(대림대학), 정보인교수(연세대), 고한경님이 동참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저 멀리 캐나다에 있는 사랑의교회에서도 '수단 양 보내기' 사업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양사업 진행에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박교수의 모교인 장충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모금을 통해 모아진 성금으로 더 많은 양을 살 수 있도록 5차 사업에 기부하였다. 플랜 수단에서는 양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전하였다.



플랜 지구촌 소식

밀러드는 '케냐 아동 상담전화 서비스' 도움 요청

플랜과 세계적인 휴대폰 회사 노키아 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아동 상담전화 서비스 '케냐 아동 상담전화 서비스'는 지난 2008년, 무려 3만 건에 달하는 도움 요청을 지원하였다. 아동 상담전화 서비스는 지난 2004년 설치되었다. 플랜은 케냐 정부를 적극 설득하여 작년에 본 서비스의 무료 장거리 전화 개선을 이끌어냈다. 케냐 아동 상담전화 서비스의 대표 이레네 나무에 따르면, 농촌 지역이나 빈민가의 경우 통신 접근이 어려운데, 휴대폰으로도 상담전화가 무료로 가능하여 통화 건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언론을 통한 캠페인 활동도 함께 진행되어 수천 명의 어린이와 어른들이 아동학대, 아동인권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케냐 아동 상담전화 서비스'가 개설되기 전, 어린이와 어른들은 아동 학대나 조기 결혼, 기타 법적 갈등이나 건강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 이 상담전화를 통해 40개의 지역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어린이들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



이제 '케냐 아동 상담전화 서비스'는 케냐를 넘어서 인근 국가인 우간다와 잠비아의 상담전화 서비스 개설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케냐 정부 산하 아동복지부 대변인 마가렛 바시그와는 "이 상담전화 서비스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 학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안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유명 저널리스트가 전하는 아동 후원에 대한 노감

플랜 USA의 후원자이자, 폴리처상 2회 수상에 빛나는 니콜러스 D. 크리스토프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올해 6살이 된 후원 어린이를 만나고 돌아왔다. 크리스토프는 보도를 위한 아이티 출장을 계기로 자신이 후원하고 있는 유네리스 어린이가 사는 인근 국가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크리스토프는 예전부터 플랜 수단을 통해 여자 아이를 후원하였던 부모님의 뜻을 이어 지난 2004년부터 플랜USA의 후원자가 되었다.

크리스토프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서남부 지역 빈곤마을 아수아에 살고 있는 후원 어린이를 포함한 그 가족과의 조우를 자신이 기고하고 있는 뉴욕타임스 칼럼에도 소개하였다.



"후원금으로 어린이가 사는 곳의 우물, 화장실, 병원 등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유네리스의 어머니 세실리아는 수도 산토 도밍고까지 나가 단순 노동자로 일했지만, 플랜의 도움으로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금전 출납원이 되기 위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지 중심으로 진행되는 모든 활동이 후원 가정과 그 마을에 큰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유네리스를 후원하면서 기부 외에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큰 정신적인 가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네리스 가족도 최신 MP3와 같은 물질적인 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후원금과 편지가 유네리스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줄 수 없겠지만, 나는 유네리스와 그 가족에게 삶의 변화를 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2009년 4월 18일자 뉴욕 타임스, '변화되고 있는 삶' 중에서,

플랜 지구촌 소식

파키스탄 무력 충돌 피해 어린이들을 위한 플랜의 활동

파키스탄 정부와 탈레반의 무력 충돌로 파키스탄 어린이들의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다. 플랜은 탈레반과 정부군의 교전에 대피한 북서부 지역 1백만 명에게 미화 10만 달러의 지원금을 투입하였다.

몇몇 지역에서는 대피한 난민의 70%가 어린이들이다. 북서부 지역의 지방정부에 따르면 스와트 지역에서만 50만 명이 집을 잃었다. 마르단, 노쉐라, 페사와르, 차르사다, 스와비 구역 18개 난민 캠프가 설치되었지만 밀려드는 사람들로 수용공간이 충분치 않다고 한다.

대부분의 난민들이 어린이와 여성들인데, 이들은 화재와 포격 등으로 충격을 받아있는 상태이다. 특히 어린이들은 큰 소리라도 나면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린다면, 플랜 파키스탄 대표 하이데르 와심 야쿰은 난민 캠프의 상황을 전했다. 캠프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지쳐있으며, 식량이나 의약품, 전기 공급과 같은 기초 생활 필수품도 부족한 상황이다.

플랜은 지난 2005년 파키스탄 지진 당시처럼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친숙한 환경 제공을 위해 난민 캠프에 어린이 전담 상담원을 긴급 배치하였다.



플랜과 함께아는 분들 / 모금함 · 특별후원금 · 특별후원자 · 신규 어린이 후원자

특별후원자																							
성경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배효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녹희	경상남도	창원시	박주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영택	인천광역시	강화군	윤정만	서울특별시	성북구						
류니나	경기도	하남시	김순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동숙	경기도	안산시	이민서	경기도	여주군	유애숙	전라북도	전주시									
권세미	광주광역시	북구	이상연	경기도	안산시	이연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재만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현옥	경기도	성남시	이경희	경기도	부천시						
허명순	경기도	과천시	박재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권지원	경기도	안산시	이민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윤계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미애	서울특별시	용산구						
강정민	대전광역시	서구	김요한	경기도	고양시	김용미	경기도	부천시	김종실	경기도	안산시	차복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성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병현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경희	대전광역시	서구	수원정	경기도	부천시	박말년	경상남도	양산시	정유선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석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혜영	서울특별시	도봉구	박민영	경기도	수원시	문창도	경기도	창원시	김정현	경상남도	양산시	이은희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성미	서울특별시	영도구						
문호영	부산광역시	사상구	문창도	경기도	수원시	김영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재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종희	경기도	수원시	이은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도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김미숙	경기도	수원시	김동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대윤	부산광역시	남구	이주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은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최창영	경기도	수원시	채영선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동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대윤	부산광역시	남구	이주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은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김혜진	충청남도	연기군	이은희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동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대윤	부산광역시	남구	이주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은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유림	경상남도	창원시	김관영	경기도	의정부시	서원	경기도	안양시	이정미	경기도	광명시	이종재	서울특별시	강태경	이정미	경기도	노원구						
윤혜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백영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문희	서울특별시	강진구	김정기	경기도	안양시	이정미	경기도	광명시	이종재	서울특별시	강태경						
김이름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현미	인천광역시	부평구	김정기	경기도	안양시	이정미	경기도	광명시	이종재	서울특별시	강태경	이정미	경기도	노원구						
임여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강종호	경기도	시흥시	차은원	경기도	고양시	김대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천순술	경상남도	김해시	이정숙	서울특별시	통창구						
김은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최우일	경기도	안양시	김정기	경기도	고양시	김대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천순술	경상남도	김해시	이정숙	서울특별시	통창구						
김영만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정희	서울특별시	수원시	박순세	부산광역시	서구	김만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천순술	경상남도	김해시	이정숙	서울특별시	통창구						
박은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김여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김미애	경상남도	사천시	박은영	충청북도	청주시	최민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미영	광주광역시	북부시						
김지영	경상남도	진주시	김기진	경기도	고양시	김동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선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최미숙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재현	전라남도	목포시						
이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수지	충청남도	예산군	문수현 문효진	경기도	화성시	조영숙	경기도	용인시	이순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권순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김민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현임	경기도	수원시	황현진	경상북도	상주시	조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규호	전라북도	군산시	박종숙	충청북도	천안시						
김혜연	광주광역시	동구	김부전	전라북도	군산시	손정준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인호	경기도	부천시	장남석	경기도	전주시	박지현	경기도	부천시						
정혜연	서울특별시	금천구	박진하	경기도	화성시	김진현	경상북도	상주시	조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규호	전라북도	군산시	박종숙	충청북도	천안시						
전서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손민호	경기도	의왕시	김진현	경상북도	상주시	조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규호	전라북도	군산시	박종숙	충청북도	천안시						
김원호	경기도	춘천시	남재희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한수정	경기도	춘천시	남재희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김태현	부산광역시	동구	권순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사숙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지은	경기도	성남시	장진영	경기도	평택시	이은진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진형 정영희	경상북도	포항시	서철현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사숙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지은	경기도	성남시	장진영	경기도	평택시	이은진	서울특별시	구로구						
김수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미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사숙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지은	경기도	성남시	장진영	경기도	평택시	이은진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윤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박현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사숙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지은	경기도	성남시	장진영	경기도	평택시	이은진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수련	대구광역시	북구	권경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재식	경기도	남양주시	사하구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고병현	경기도	용인시	정우석	서울특별시	안양시	김성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성유성	울산광역시	남구	김정희	서울특별시	은평구	송아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인근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박현숙	경기도	성남시	박은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전경미	경상북도	구미시	김희숙	인천광역시	부평구	김희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김지혜	인천광역시	부평구	김규환	경기도	수원시	고남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홍순영	경기도	의왕시	김민석	경기도	구리시	김범수	경기도	시흥시	원순옥	서울특별시	강서구	윤동현	전라남도	강동시									

2009년 3월~2009년 5월 신규 후원자 번호순으로 게재하였습니다. 후원에 동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조선허텔	일시 후원금
인천공항 조선허텔 일식당	84,750
인천공항 조선허텔 다이닝 카페	26,530
인천공항 조선허텔 푸드코트	10,720
인천공항 일식당	106,190
오킴스브로이하우스	32,340
자바씨티	일시 후원금
자바씨티 서현점	55,270
유석민	40,000
중일예루살렘교회 성도일동	1,000,000
이진범	30,000
최용아	10,000
박을재	10,000
하미선	30,000
이순례	100,000
함한정	100,000
함세훈	100,000
김석찬	10,000
박미쓰자	10,000
유지수	10,000
기부금	30,000
이형순	30,000
김수영	30,000
홍진명	150,000
송화석	10,000
이태경	30,000
아침해어린아침	50,000
최승원	3,000
권태경	30,000
김순자	100,000
신영미	50,000
정성훈	50,000
주재화	10,000
정미희	10,000
조병주	10,000
박세희	30,000
박진민	100,000
홍진명	30,000
이상운	30,000
장자하	30,000
김박동	20,000
김순자	30,000
장영미	200,000
신영미	50,000
정성훈	30,000
주재화	100,000
정미희	10,000
조병주	10,000
김영하	200,000
하부용	10,000
유승원	50,000
최명순	10,000
일반 모금함	
COATEL	29,610
베스트 웨스턴 호텔	45,810
리베라호텔 3개	180,340
인천공항-신세계백화점	44, 160
창원 디자인스타 미술학원	30,400
최현나	19,240

신규 어린이 후원자																							
나은영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황하연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신현우	서울특별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이성화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	과천시	과천시	과천시	과천시	과천시	과천시	과천시	과천시	과천시	과천시	과천시	과천시	과천시	과천시	과천시	과천시	과천시	과천시	과천시	과천시
노민영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손영준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은주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중구
홍지아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최미영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성진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희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찬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김영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이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PAGODA 세계후원 캠페인 - Love & Love

390

전세계에는 390명의
아주 특별한
PAGODA가족이 있습니다!

PAGODA는 2002년부터 플랜코리아와 함께
제 3세계 극빈 어린이 390명(과거 총 250명,
현재 140명 후원 중)을 후원해오고 있습니다.

PAGODA 교육그룹

Love
&
Love